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1집 첫 주문 물량만 12만장 투애니원

“무대 오르고싶어 근질근질 했어요”

최근 가요계에서는 투애니원(씨엘 19, 산다라 26, 박봄 26, 공민지 16)의 1집 발매에 촉각을 세웠다. 수록곡들이 좋다는 입소문에 투애니원의 1집을 피해 신보 발매 일정을 조정하는 음반기획사도 있었다.

예상대로 지난 9일 발매된 이들의 1집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캔트 노바디(Can't nobody)' '박수쳐' '고 어웨이(Go away)' 등 3곡을 타이틀곡으로 미는 독특한 전략을 세웠는데 이 곡들이 각종 음악차트 1~3위를 싸움이 했다.

멤버들은 "1집 첫 주문 물량만 12만장"이라며 "공백기 동안 빨리 무대에 오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다. 우리의 음악과 스타일이 진화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투애니원의 신보가 빠르게 좋은 반응을 얻은 것은 데뷔 1년 만에 '아이 돈트 케어(I don't care)', '파이어(Fire)' 등의 히트곡을 내며 대중에게 음악적 신뢰도를 쌓은 덕택이다. 또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최대한 자제해 이미지를 과도하게 소비하지 않으며 신선함을 유지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힙합을 근간으로 한 음악과 중심적 이미지로 소녀시대, 카라 등 여느 '걸그룹'과 차별화된 노선을 택했다는 점이다.

리더인 씨엘은 "YG의 음악 색깔은 힙합 성향이 강하다"며 "양현석 대표님이 우리를 통해 여성이 들려주는 힙합의 매력을 보여주

“관객들 미치게 만들고싶은 욕심 생겨 당당한 여성 대표하는 아이콘 됐으면”

고 싶어했다. 그래서 빅뱅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실험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어 버전도 수록한 '캔트 노바디'는 한 마디로 '센 음악'이라는 게 멤버들의 설명. 대신 신나는 비트의 '고 어웨이'와 힙합 리듬의 '박수쳐'는 대중적인 멜로디를 입혀 친근하게 들린다. 힙합, 록, R&B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에서는 멤버들 각자의 감정이 확연히 도드라진다. 멤버들은 자신들의 장점이



산 것은 YG의 프로듀서인 테디와 쿠시 덕택이라고 입을 모았다.

산다라는 "사실 힙합은 내 목소리와 잘 안 맞는다"며 "테디 오빠가 '파이어' 때처럼 '캔트 노바디'에서도 내 음색에 맞는 멜로디 부분을 따로 만들어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저음의 확실기"란 별명을 지닌 공민지, YG에서 가장 실력을 많이 할 수 있는 목소리로 꼽히는 씨엘은 랩과 보컬을 오가며 실력 발휘를 했다. 주로 멜로디 라인을 담당하는 박봄의 곡쪽 누르는 힘있는 보컬도 결코 묻히지 않았다.

투애니원은 공백기 동안 쉬지 못했다. 미국 그룹 블랙아이드피스의 멤버이자 프로듀서로 유명한 윌.아이.엠과 내년엔 선보일 미국 데뷔 음반 작업을 했기 때문.

지누선의 지누가 미국에서 열린 한 파티에서 투애니원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자 윌.아이.엠이 관심을 가지며 프로듀서를 자처했다고 한다. 멤버들은 지난 4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아이.엠의 작업실 겸 집에서 1주일간 머물며 첫 녹음을 했다. 이어 5월 블랙아이드피스의 공연이 있던 영국 런던의 스튜디오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추가 녹음을 했다.

투애니원의 10대 멤버들은 가수로 데뷔하며 또래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생활을 포기했다. 고교 2학년 때 자퇴한 씨엘은 2년 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공민지도 지난해 고

교 입학 직후 자퇴했다. 씨엘은 "평범한 생활을 못하는 건 아쉽지만 나의 에너지가 100%일 때 하고 싶은 일에 전력투구하는 건 행복한 일이다.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공민지도 "무대는 중독성이 있다"면서 "노래와 춤은 진정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기에 무대에 오를수록 그 재미에 빠져든다. 요즘은 관객을 미치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며 웃었다.

"우린 아이돌보다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 좋은 노래를 들려주는 건 가수의 일차적인 의무니까 우리 꿈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희망적인 기운을 주고 싶어요. 멋있고 당당한 여성을 대표하는 아이콘이 되고 싶어요."(씨엘)

연습소

데뷔 20년 가수 장혜진

첫 리메이크 음반 발표

1991년 데뷔한 장혜진(42)이 첫 리메이크 음반 '가려진 시간 사이로'를 발표한다.

워너뮤직코리아는 14일 "장혜진은 평소 즐겨 부르던 남자 가수들의 노래를 여성 보컬로 재해석했다"며 "오늘 음원 서비스를 하고 17일 음반으로 발매한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가려진 시간 사이로'는 싱어송라이터 윤상의 대표곡으로 장혜진은 발라드 원곡을 어쿠스틱한 재즈로 편곡해 소화했다. 이밖에도 음반에는 김중국의 '한남자', 김현철의 '끝난건가요' 등 5곡과 이 곡들의 반주곡까지 총 10 트랙이 수록됐다.



“늘 우아한 척 고상한 척 했는데 코믹멜로 연기 편하고 재밌어요”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 윤유선

"한번도 안해 본 연기를 하니 너무나 재미있어요." SBS 수목극 '내 여자친구는 구미호'에 출연 중인 배우 윤유선은 요즘 연기하는 재미를 부쩍 느낀다. 데뷔 후 처음으로 하는 코믹 멜로 연기에 푹 빠져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에서 노처녀 차민숙 역을 맡은 그는 무술감독 반 두홍으로 나오는 성동일과 알콩달콩한 로맨스를 선보이며 주인공 커플인 이승기, 신민아 못지않은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를 "파트너로 같이 연기하다 보니 생각보다 성동일 선배가 잘생겼더라"며 밝게 웃었다.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멜로 연기를 하는 게 처음인 거

같아요. 진짜 멜로 연기를 하는 오연수가 부럽긴 하지만 뭘... 저는 그보다 더 느끼한 멜로라서 더 재미있어요.(웃음)"

드라마에서 주로 참하고 우아한 역할을 연기했던 그는 항상 재미있는 역할을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감독님이 역할을 물색할 때 거꾸로 제일 안 웃기고 진지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 저를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너무 좋았죠. 늘 우아한 척 고상한 척 연기하다가 풀어드는 역할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해보지 않았던 역할이라 막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처럼 편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웃기다고 해요. 아무래도 친구나 가족처럼 편한 사람들 하고 있을 때는 웃기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편도 방송에서 내숭을 떠는 건지 왜 우아한 역할만 하냐고 묻기도 했어요.(웃음)"

그는 차민숙을 연기하면서 다시 연애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한번도 색시한 역할을 연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줄리 흥내낼 때는 대사가 너무 웃겨서 연기하기가 힘들었어요. 대본만 보는데도 웃겨서 50번 이상 연습하고 촬영을 했죠. 너무 다정한 건 코믹한데 억지스런 상황이면 어색했을 텐데 대본이 너무 재미있어서 연기하면서도 즐거워요."

성동일과 호흡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둘 다 너무 진지하게 연기만 하는 분위기였는데 역할에 몰입하다 보니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며 "내게 부족한 코미디감을 보완해 주신다"고 했다.

1974년 6살의 나이에 데뷔한 후 그는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왔다.

"지금 승기를 보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전 그 나이 때 그렇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렵게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잘하고 싶어요. 서른살이 넘으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연기에 대한 열정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는 "드라마에서는 일탈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연기 욕심을 드러냈다.

연습소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

가격 30,000원 택배비 무료

1일 30~40분 운동으로 노후 건강이 보장된다

발목펌프운동은 혈액순환장애에서 시작되는 모든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결시켜 준다. 고혈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은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이 발끝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 되어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데서 온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일본인이 최초로 개발한 이 기구는 약을 전혀 먹지 않고 꾸준한 **발목펌프운동**만으로 각종 질병이 치유되고 동시에 예방할 수 있음으로 평생을 건강하게 무병장수 할 수 있다.

운동봉을 빌려 드리오니 실제 체험을 해 보시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구입하시고 효과있으면 반품하세요.

운동방법

- 1 누워서 운동봉 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 2 한쪽 다리를 30cm 이상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 좌, 우 교대로 한다.
- 3 이상과 같이 처음에는 하루에 500회, 1,000회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아침 저녁 2회)정도 매일 꾸준히 한다.

온라인
계좌
광주은행 125-121-002455
예금주 : 서영심
계좌번호 601154-52-335334

상담
전화
062)672-2002 / H.P. 010-7510-2000
광주 남구 전월동 258-1 2층 제일건강 / 국민은행 건너편 연민도너츠 2층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중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